

高麗 竹林高會의 作品世界 研究

— 詩學 檢證을 중심으로 —

許 南 郁*

<目次>

- | | |
|-----------------------|---------------------|
| I. 序 | IV. 質朴한 古風詩 추구 및 한계 |
| II. 形式爲主의 科場文學에 대한 省察 | V. 結 |
| III. 古文創作을 위한 노력과 한계 | |

<국문 초록>

본 논의의 목적은 筆者가 지난번에 『漢文古典研究』 第13輯에 발표한 高麗 ‘竹林高會’ 詩學을 檢證하기 위해 그들의 作品世界를 고찰함에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죽림고회원이 활동했던 기간은 정중부의 난으로 인하여 구귀족이 몰락하고 신진사류가 새로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옛 문신 귀족 출신은 무신들에 의해 가문이 몰락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당시 형식 위주의 科場文學이라든가 변려문의 유행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詩가 본질을 벗어나서 戲作化 되는데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고문부흥운동을 제창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實際 작품을 살펴보면 그들의 문학론과 실제 작품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현상이 나타난다. 즉 죽림고회원들은 그들의 문학론에 입각한 글을 쓰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많이 남겼다.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heonw@kangwon.ac.kr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들의 실제 작품을 검토하여, 그것이 그들의 詩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해보고, 그들의 실제 作品에 그들의 詩學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만약에 그것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同時代人으로서 당시 문인들이 지녔던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竹林高會, 詩學檢證, 駢儷文, 戲作化, 古文復興運動

I. 序

본 논의의 목적은 12세기 후반에 형성된 高麗 ‘竹林高會’의 詩學 檢證을 위해 그들의 作品世界를 고찰함에 있다. 죽림고회의 詩學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漢文古典研究』 第13輯에 발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들의 실제 작품을 검토하여, 그것이 그들의 詩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해보고, 그들의 作品에 그들의 詩學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며, 만약에 그것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同時代人으로서 당시 문인들이 지녔던 고민을 살펴보고자 한다.

죽림고회원이 활용했던 기간은 정중부의 난으로 인하여 구귀족이 몰락하고 신진사류가 새로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옛 문신귀족 출신은 무신들에 의해 가문이 몰락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당시 형식 위주의 科場文學이라든가 변려문의 유행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¹⁾ 詩가 본질을 벗어나서 戲作化되는데 대해서 신랄한 비판

1) 임춘은, “이에 과거장의 글이란 것은 취하여 읽어보니 교묘하다고 하면 교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어려운 것은 없었고 진실로 배우의 말 같은 類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헤아려 말하기를 ‘이같이 하기도 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甲·乙科에 합격된 것이라도 팔 굽힐 사이에 지을 수 있을

을 가하였다.²⁾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고문부흥운동을 제창하였다.³⁾ 그러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及取時 所謂場屋之文者讀之 工則工矣 非有所謂 甚難者 誠類俳優者之說 因自計曰 如是而以爲文乎 則雖甲乙 可曲肱而有也.)” (林椿, 西河集, 卷4, 「與趙亦樂書」)라고 하여 과거의 글을 배우의 말과 같은 類로 취급하면서 참된 문풍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임춘은, “근세에 과거 보임이 聲律에 구애 받았으므로 가끔 小兒의 무리가 능히 甲科 乙科에 모두 합격되고, 박식한 선비는 많이들 버림을 받게 되었으므로 조야가 모두 슬퍼하고 원통히 여겼던 것이다.(近世取士拘於 聲律 往往小兒輩 咸能取甲乙而宏博之士 多見擯抑 故朝野嗟冤.)” (위의 책, 卷4, 「與皇甫若水書」)라고 하여 당시의 文風인 4·6 변려체와 광종 이후의 科擧文體로 인하여 散文이 ‘聲律對仗·彫琢辭藻·浮艷華美’의 성격을 띠어 가면서 비실용적이고 고식적인 문체로 변모 되어감을 지적하였다.

이인로의 경우 4·6 변려체로 인하여 章句聲律에 치우쳐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기교에만 빠져있던 당시의 문풍에 맞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흔적이 『과한집』 도처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즉 당시의 문인들이 誤解·誤用하던 黃庭堅의 ‘換骨奪胎’ 및 用事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 등을 드러내어 예시한 것이라든가, 琢句의 本領을 제시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且人之才如器皿方圓 不可以該備 而天下奇觀異賞 可以悅心目者 其夥苟能才不逮意則 譬如鶩蹄臨燕越千里途 鞭第雖勤不可以致遠”(李仁老, 『破閑集』, 卷上 20); “使事益精 逸氣橫出 琢句之妙 可以與少陵并駕”(위의 책, 卷上20); “此換骨奪胎雖與夫活剝生吞者 相去天淵 然未免 剽掠潛竊以爲之工 豈所謂出新意於古人所不到者之爲妙哉”(위의 책, 卷下20)

- 2) 和·次韻에 대해 이인로는 “縉紳들이 대개 화답한 것이 거의 100수나 되어 제목을 붙여 『分行集』이라 하여 학사 朴昇沖이 序를 쓰고 임금의 아우 大原公이 板에 새겨서 전했다.(縉紳皆屬和幾一百首 目之分行集 學士朴昇沖爲書 皇大弟 大原公鏤板以傳之.)”(李仁老, 『破閑集』, 卷上)라고 하여 당시에 唱和가 유행하는 풍토를 지적하고, 이어서 “요즈음 均계집을 열어보니 대부분이 증답편이었다. 이걸 완미해 보니 모두 그 전에 보던 시만 못했다. 혜홍은 비록 기재이긴 하나 외부적인 기교를 면치 못했다.(近有以筠溪集示之者 大率多贈答篇 玩味之 皆不及前詩遠甚 惠弘雖奇才 亦未免瓦注也.)”(李仁老, 『破閑集』, 卷上)라고 하여 당시의 化·차운이 널리 유행하기는 했지만, 그 化·차운의 시는 前詩에 구속되어 前詩만은 훨씬 못하기 때문에 바림직한 시풍이 못된다고 하였다. 또한 走筆에 대해 이인로는, “일찍이 莎樓에 木芍藥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궁중의 여러 유생들에게 명하여 7언 6운의 刻燭詩를 지으라고 했다. 그 때 동궁에 딸린 안보린이 장원을 했고, 등급에 따라 恩賜가 푸짐했다.(嘗御莎樓前木芍藥盛開 命禁署諸儒刻燭賦七言六韻詩 東宮寮 佐安寶麟爲之魁 隨科級恩例尤厚.)”(李仁老, 『破閑集』, 卷上)라고 하여 당시에 임

금들까지도 酒宴을 베풀고 刻燭走筆(초에 금을 그어 놓고 그것이 탈 때까지 시간을 한정하여 짓는 시)을 즐겨 즉석에서 신하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는 일이 유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시의 巧拙은 遲速과 先後에는 관계없다. 先唱者는 앞서고 和答者는 항상 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선창자는 유유한가해서 촉박함을 모를 것이고, 화답자는 牽強隨險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남이 부른 운으로 글을 지으려면 비록 뛰어난 재질을 가진 사람이라도 왕왕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까닭인 것이다.(詩之巧拙不在於遲速先後 然唱者在前 和之者 常在於後 唱者 優遊閑暇 而無所迫 和之者 未免牽強隨險 是以繼人之韻 雖名才往往有所不及 理固然矣.)”(위의 책, 18)라고 하여 시가 잘되고 못됨은 짓는 속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刻燭을 다루는 走筆은 바람직한 詩風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는 回文詩에 대해서 이인로는, “회문시는 六朝의 체·양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 대개 문자의 놀음이다. 옛날 두도의 아내가 시를 지어 비단에 짜낸 뒤에 베 짜는 기계인 저축이 남았고, 송의 3현도 여기에 조예가 깊다. 남서집 중에 실려 있는 반중체는 비록 돌려서 이걸 읽더라도 40수로 나눌 수 있다. 그 운은 서로 어울려져 있으나 그 내용은 똑같지 않다. 본조의 학사 이지심이 感秋라는 제목으로 쌍운 회문시를 지었는데 매우 교묘했다.回文詩 起於齊梁 蓋文字中戲耳 昔竇滔妻織錦之後 杼柚猶存 而宋三賢亦皆工焉 南徐集中所載盤中體 雖連還讀之 可以分四十首 其韻尚諧 然血脈不相聯 本朝學士李知深感秋作雙韻回文詩頗工.)”(위의 책, 16)라고 하여 회문시의 기원에 대해 말하고, 本朝에서는 학사 李知深이 이 회문에 능했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 회문시는 문자 속의 장난 즉 戲體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풍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의 문인들은 시재를 겨루기 위해 險韻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인로는, “의왕 초년에 청교역리가 靑牛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조정에 바치고 왕은 詞臣들로 하여금 韻字를 내고 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운자가 매우 까다로워 난색을 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毅王初 靑郊驛吏 養一靑牛 狀貌特異 獻諸朝 上命近署詞臣 賦詩占韻而韻險峭 莫不有難色.)”(위의 책, 18)라고 하여 궁벽한 힘운에 맞추어 시를 짓는 일은 매우 어려워 자연스러운 意趣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죽림고회원들은 모두 당시의 희작화된 시풍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학의 正道를 걸으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 3) 죽림고회원들마다 각기 개성을 지니고 있어 그들의 지향점이 같은 방향으로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나 문학은 思考의 산물이고 같은 思考의 결집에 의해 同人들이 결성되는 평범한 논리로 볼 때, 그 전체적 방향이 일치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문학적 특질이라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죽림고회의 문학적 특질을 부화한 문풍을 개혁하여 문학의 정치·사회적 功

나 그들의 實際 작품을 살펴보면 그들의 문학과 실제 작품 사이에는

能, 특히 유교적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고문에 대한 관심, 즉 ‘斯文’, ‘吾道’ 의식을 바탕으로 ‘고문부흥운동’이라고 하겠다. 林椿은 「與趙亦樂書」에서 “나는 성품이 본래 광달하고 大道를 묻기를 좋아해서 세속의 文字 사용하는 기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僕性本曠達 好問大道 不樂爲世俗 應用文字.)”(林椿, 『西河集』 卷4, 「與趙亦樂書」)라고 자부하면서 科文을 배우의 말과 같은 類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與皇甫若水書」에서 “내가 대략 당세의 사대부들을 보니 뜻이 멀고 큰 사람은 극히 적고, 단지 과거에 합격하여 富貴에 힘입으려고 할 뿐이고 꽤연히 단비가 오듯이 횡행하여 저술하는 마당에 활보하여 西漢의 문장(前漢의 문장, 곧 古文)을 일으킬 사람은 그대를 제쳐두고는 누구이겠습니까? 힘쓰고 힘쓰십시오.(僕略觀 當世士大夫 志於遠且 大者甚少 但以科第爲富貴之資而已 其邇然霈然橫行闊視於綴述之場 可以興西漢之文章者 捨足下誰耶 勉之勉之.)”(林椿, 위의 책, 卷4, 「與皇甫若水書」)라고 하여 宏博한 선비가 과거에서 제외되는 풍토를 지적하면서 친우인 황보항에게 西漢의 문장 곧 고문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였다. 임춘은 또한 「答靈師書」에서 “무릇 세상에 소위 名儒란 사람은 (중략) 지금 세상에서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옛날에도 또한 적었습니다. 賈誼, 司馬遷, 韓愈, 柳子厚 등이 있었으니 漢·唐의 盛世에 그 사업이 더욱 현저하여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이에 그칠 뿐이고, 近古에 歐陽永叔은 古文을 숭상하고 諸子書를 배격하여 지금의 韓愈로 알려졌고, 王甫介는 墳典을 祖述하여 先聖의 道를 밝혔고, 蘇子瞻은 諸子百家的 글을 대단히 사랑하여 著作의 근원을 궁구하였으니, 또한 참된 선비인 것이다.(夫世所謂名儒者 (中略) 不唯今世所不見 雖古亦少 若賈誼司馬遷韓愈柳子厚輩是也 以漢唐之盛 其事業之尤著顯卓然 可見者止此而已 近古又有歐陽永叔 尙古文以排諸子 至號今之韓愈 王甫介祖述墳典 明先聖之道 蘇子瞻牢籠百氏 以窮著作之源 亦真名儒也.)”(위의 책, 卷4, 「答靈師書」)라고 하여 문장의 典範에 드는 사람을 제시했다. 즉 前漢의 賈誼·司馬遷, 唐의 韓愈·柳宗元, 宋의 歐陽修·王安石·蘇軾을 고문가의 모델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인로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唐의 문장이 옹혼하여 세상이 따르지 못하지만, 세 번 변하여 한 시대의 법이 되었다. 한유의 뛰어난 기운은 荀子和 陽雄을 삼키어, 찬란한 호랑이와 봉황이 굴레와 그물을 벗어났다. 柳宗元도 정묘하고 예민하여 小雅를 모방하고 離騷를 의지하여 지은 글이 많았다. 두 사람은 모두 글에 공이 있지만 한유의 곧은 절개는 더욱 우뚝하였다.(唐文渾渾世莫及 三變終爲一王法 韓公逸氣 吞荀楊 詭然虎鳳謝羈鼻 柳州柳子亦精敏 傲雅依騷 多綴緝 二公於文 俱有功 唯韓直節 千仞立.)”(徐居正, 『東人詩話』, 卷六, 「白樂天真呈崔太尉」)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인로는 古文家를 숭상했으나, 그 중에서도 한유 등 문장가를 더욱 따랐음을 나타냈다.

상당한 괴리현상이 나타난다. 즉 죽림고회원들은 그들의 문학론에 입각하여 글을 쓰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많이 썼던 것이다.

그러면 본 논의에서는 당시 문풍 비판에 의한 죽림고회원들의 고문운동이 그들의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들의 문학론에 어긋나는 詩作品이나 散文作品을 찾아 자신들의 문학론과 어긋나게 된 내력을 구명해보기로 한다.

II. 形式爲主의 科場文學에 대한 省察

죽림고회원들이 형식위주의 科文을 싫어하여 많은 비판을 가했지만, 그들은 모두 옛 문신 귀족층의 후예로서 가문의식이 무척 강했던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는 과거를 통한 현실참여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科文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사실 죽림고회원 중에서 임춘 이외의 6인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으며 임춘도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다가 낙방하였던 것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른 기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장기, 바둑, 投壺, 음악, 활쏘기, 말타기 어느 하나 익힌 바가 없고 오직 독서와 글을 배워서 이것으로 자립하고자 했고, 가문의 餘陰을 빙자하여 벼슬 구함을 수치스럽게 여겼으므로 先君께서 권세를 잡으셨을 때에도 어찌 祿利를 구하는 것으로서 제 몸의 영광을 삼았겠습니까? 하물며 先君께서 벼슬할 것을 강력히 말씀하셨으나 좇지 않은 것이 여러 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나이가 젊고 기운이 날카로워서 世變을 겪지 못하고 마음만을 믿고서 줄 곳 행해서 기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뜻지남이 심히 높고 절개 지킴이 더욱 굳어 드디어 문장으로서는 세상에 이름이 높았는지라, 이로써 날로 自負하여 제법 남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를 웃고 욕하고 원수처럼 미워하는 자가 나의 無狀함을 꾸짖어 한 마리의 개가 보고 짖으매 모든 개가 짖어서 점차로 괴물로 되어 버렸고 증도에 立身할 일이 한번 허물어지며 만사가 기와처럼 풀어져 외롭고 위태하고 없어져서 일어설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정에 이미 이 몸을 알아줄 大人이 없어 발탁되지 못하였고, 그

바라고 나아갈 계제는 오직 과거가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미끄러졌으니 저의 시들과 위대한 정상은 한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중략) 先世의 남은 재앙이 쌓인 바가 특히 나의 몸에 미쳐 반드시 무절러 끊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함인가, 아니면 앞서 疏狂하고 그릇되어 남들의 질투가 많았음으로 못 입에 올라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가. 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⁴⁾

임춘은 인용문에서, 자신은 젊어서 先代의 陰德으로 官界에 진출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의 힘으로 문장을 닦아 성공하려고 했으며, 科文 따위는 우습게 여겼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문장으로서는 一家를 이루었으나, 무신난으로 인하여 先代의 功陰田조차 모두 兵士에게 탈취당하여 몹시 곤궁한 처지가됨에 달리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어 할 수 없이 그가 우습게 여겼던 과거에 응시했지만 그것도 평소에 科文을 익히지 않았던 까닭에 낙방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죽림고회원들은 당시의 형식위주의 科文을 비판하였으나 儒者로서의 가문 부흥의식과 곤궁한 생활의 타개책으로 과거를 전연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Ⅲ. 古文創作을 위한 노력과 한계

죽림고회원들은 先秦·兩漢의 고문과 唐·宋 고문에 대한 일정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個人차는 있지만 당대의 문학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4) 林椿, 『西河集』, 卷4, 「與王若疇書」 “僕自幼不好它技 博奕 投壺 音律 射御 一無所曉 惟讀書學文 欲以此自立 而恥籍門戶餘陰以干仕宦 故先君柄用時 豈求取祿利以爲己榮哉 況先君或強之仕而 不從者屢矣 此亦年少氣銳未更世變信心直 遂不識幾微耳 其持心甚高礪節益堅 遂以文名於世 以是日自負頗凌轢人物 誠自有之所罵仇疾者粉飾無狀 一犬吠形千犬吠聲 漸成怪物 而中路陷陋立身一敗 萬事瓦裂危顛踣無路可振 既朝無知己大人之 所拯拔其所望以爲階梯者 獨科第耳 今又蹇滯如此 僕之衰危又可寒心 (中略) 將先世 餘殃所積特鍾於僕 必欲勦絕而不起耶 抑向以疏狂謬戾人多嫉媢故爲衆口所鑠而然耶 有不可測者”

기울였다.

그들의 고문운동은 먼저 역대 고문가들이 중시했던 養氣論으로 나타나며⁵⁾ 이어서 詩才의 한계성 극복을 위하여 연탁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⁶⁾ 또한 고문운동의 본질인 ‘風骨’과 ‘興奇’을 받아들여⁷⁾ 假傳

- 5) 氣는 길러 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먼저 曹丕는 “氣는 도덕적 함축은 없고 뜻에 의해 통솔될 대상도 아니며 얻어질 수도 없다.”(曹丕, 「典論論文」, 『昭明文選』, 卷52)고 해서 養氣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先天氣의 입장을 취했다. 고려에서는 이규보가 曹丕의 氣論을 이어 “氣는 하늘에 근본을 두어 배워서 얻을 수 없다.(氣本乎天 不可學得)” (李奎報, 『白雲小說』)라고 하여 天賦的 氣質論을 내세웠고, 이어서 崔滋도 “詩文以氣爲主 氣發於性”(崔滋, 『補閑集』, 卷中, 46)이라 하여 조비의 先天氣 입장을 계승했다. 이에 비하여 임춘은 다음과 같이 養氣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장부는 널리 돌아다니며 먼 곳으로 구경을 다니어 천하를 휘젓는다면 장차 그 가슴속에 秀氣를 넓히게 될 것이다.(大丈夫 周遊遠覽 揮斥八極 將以廣其中秀氣耳.)”(林椿, 앞의 책, 卷5, 「東行記」) 이처럼 임춘은 養氣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後天氣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養氣論의 입장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것은 먼저 『孟子』 「公孫丑」의 浩然之氣章에서 언급된 養氣論에 근원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浩然之氣章에서 孟子는 氣를 ‘正義의 축적의 결과이며, 길러질 수 있고,志에 의하여 통솔되는 것(夫志氣之帥也 氣體之充也 夫志至焉氣次焉 (中略) 其爲氣也 配義與道.)’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養氣論의 입장은 劉勰을 통해 계승되며, 唐代의 古文家인 韓愈 및 宋代의 蘇轍에 의해 문학작품 속에 용해되어 나타나게 된다. 蘇轍은 「上樞密韓太尉書」에서 “태사공이 천하에 行함에 온 세상의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보고, 燕趙 사이의 준결들과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文은 疏蕩해져서 자못 기이한 기운이 있게 되었다.(太史公行天下 周覽四海名山大川 與燕趙間豪俊交遊 故其文 疏蕩 頗有奇氣)”(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香港: 宏智書店, p.174)라고 하여 周覽을 통한 養氣를論했다. 그런데 周覽을 통한 養氣論은 바로 唐宋 古文家의 주된 문학론이었다. 따라서 고문주의자인 임춘 등의 양기론은 바로 한유·소철 등의 고문주의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겠다.
- 6) 이인로는 본격적인 養氣說을 내세운 적은 없지만 鍊琢에 의해 詩才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의 재주란 그릇의 모나고 둥근 것과 같이 함께 견비할 수 없다. (중략) 그러므로 옛날 사람들은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감히 경거망동하게 손을 놀리지 않고 반드시 갈고 닦는 공을 더한 후에야 빛을 내려 무지개처럼 천고에 빛날 수 있었던 것이다.(人之才如器皿方圓 不可以該備 (中略) 是以古之人 雖有逸材 不敢妄下手 必加鍊琢

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假傳은 한유 등 불우했던 고문가들이 현실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불우를 달래기 위해 창작했던 문학형태로 임춘이 제일 먼저 한유를 본받아서 麴醇傳을 창작하기에 이른다. 임춘은 당대에 풍미했던 변려문에 반대하여 史傳의 형식을 빌어 古文으로 假傳을 창작한 것이다.

본래 가전은 유가의 君臣之義를 구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典故를 중시하며 고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문정신에 충실한 장르인 것이다. 또한 ‘法古創新’의 정신과 ‘風骨’의 정신은 죽림교회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작케 하여 이 땅 최초의 詩批評書인 『과한집』을 내놓게 했다. 『과한집』이외에도 『西河集』이나 기타 序·跋·書 등에 그들의 批評論이 散在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인로는 고문운동의 일환으로 「和歸去來辭」를 창작하여 이 땅에 ‘辭’ 문학의 장을 열어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긴 문장 가운데는 과장된 표현의 4·6 변려체가 그대로 나타나있는 것이 있다. 즉 임춘의 경우 고문의 완성으로 자부했던 그의 「逸齋記」에서조차 간간이 4·6문이 섞여 있으니 당시에 있어서 古文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啓⁸⁾의 경우는 완전한 對句의 문장으로 조탁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즉 정제된 句節·對偶의 重示·典故의 多用 등 극도의 수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게다가 구절마다 과장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임춘의 啓인 「賀李壯元眉叟」란 글을 보자.

之工 然後足以垂光虹霓輝映千古.)”(李仁老, 앞의 책, 卷上) 즉 이인로는 才를 器皿에 비유하여 그릇이 方과 圓을 겸할 수 없는 것과 같이 詩才의 한계성을 전제한 뒤, 이를 극복하게 위해 연탁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자연 用事論에 접근하였던 것이다.

7) 韓連洙, 「高麗 竹林高會研究-文壇의 性格을 中心하여-」, 『國語國文學』 第15輯,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p.112.

8) 啓는 어느 것에 대해서 論함을 주로 한 書信의 글을 말한다.

문장이 높고 학문이 넓으니, 當今 그대를 버리고 누가 있던 말이고. 묘하게 뽑고 정밀하게 알아내니, 人材를 얻은 것이 지금이 가장 성합니다. 듣고 보는데 모두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狀元께서는 王佐의 재주를 짊어졌고 名家의子弟로 이름났으니 마치 高山의 深谷에 龍虎가 변화함과 같아서 때를 따라 숨고 나타는 것 같으며, 마치 孤峯 絶岸에 구름과 뇌성이 일어난 것 같아서 문장이 世俗를 놀라게 합니다. 蠻夷가 글을 사가려 하고 草木 역시 그 名聲을 알고 있습니다. 升堂補闕의 시험에 나아가서는 모든 선비가 팔짱 끼고 빙 둘러서 바라만 보았으니 얼마나 뵈우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귀양 온 仙人이요, 세상의 奇男子이십니다. 하물며 문학이 바야흐로 땅에 떨어지려 하는데 임금께서 급히 인재를 뽑은 것입니다. 과연 精하게 뽑는 데에 응하여 수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武帝가 司馬相如의 賦를 읽고 한 시대에 만난 것을 기뻐하였으며, 玄宗은 李白의 재주를 듣고 불러서 친히 보았습니다. 아침에 겨우 신급제의 머리에 줄을 지어 나오자 저녁에 벼슬하여 玉堂에서 待詔할 것이니, 선비를 선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오직 公뿐입니다. 마음은 雲夢澤을 아홉 개나 삼킬 만하니 人望을 평소부터 經綸의 포부를 가졌다 하였으며 집안에 黃扉에 이른 이가 이미 네 사람이라 位는 장래 廊廟에 오를 것입니다. 文風을 크게 떨치게 하시니 儒者의 지극한 영광입니다. 某는 같이 공부하던 옛 친구이며, 山野에 버려진 늙은이라, 봉새의 바다에서 羊角의 바람을 치며 날을 길이 막혔고 병으로 蟻床에 누워 달려가 축하하는 예를 올리지 못합니다.」⁹⁾

인용된 啓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4·6의 字數를 맞춘 흔적과 典故의 多用 및 과장이 역력함을 알 수 있다.

9) 徐居正, 『東人詩話』, 卷46, 「賀李壯元眉叟啓」. “文高學博 當今捨我其誰 選妙鑒精 得人於斯爲盛 凡其聞觀 莫不歡欣 恭惟狀元 負王佐才 號名家才 若高山深谷 龍虎變化 隱顯隨時 如孤峯絶岸 雲雷發興 文章駭俗 蠻夷欲購篇什 草木亦知其聲名 趨升堂補闕之試則諸生推而先登 應宏辭拔萃之科則多士拱而圓視 何其壯也 孰敢當哉 是天上謫仙人 眞世奇男子 況斯文已將墜地 而聖主急於取才 果應精求 首登優第 武帝讀相如之賦 喜於同時 明皇聞李白之才 召而親見朝 纔綴行於桂嶺 夕必待詔於玉堂 選士以來 唯公而已 胸吞雲夢者九箇 望素負於經綸 身到黃扉已四人 位竝登於廊廟 使文風而大振 爲儒者之極榮 某筆硯舊交丘園遺老 路窮鵬海 阻攀羊角之博 病臥蟻床 未展鳧趨之禮”

즉 죽림고회원들이 비록 과장된 표현의 변려체를 비판하면서 고문부 흥운동을 제창했지만 儒者로서 그들은 끝내 宦路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자니 실권자들에게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詩才 과시를 위한 방편으로 고도의 수사를 요하는 변려문을 끝내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質朴한 古風詩 추구 및 한계

임춘이나 이인로 등은 고문의 부흥을 표방하여 黃山谷流의 換骨奪胎가 지닌 표절성을 비난하면서 당시 문인들이 東坡를 모방하여 표절을 일삼는 행위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質朴한 古風인 詩를 지향하였다. 또한 이인로의 경우 ‘法古創新’의 정신으로 新意 創出을 위한 이론적 모색과 言外之味(말에 나타난 의미 밖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의 구현을 위한 詩中畫¹⁰⁾의 경지를 추구하였고, 임춘의 경우 ‘奇’를 중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죽림고회원 중에서도 고문부흥운동에 先鋒이었던 이는 특히 현실문제가 절박했던 임춘이었다. 『서하집』에 실려 있는 임춘의 詩는 모두 181首이다. 그런데 그의 詩는 대부분 古詩로 長篇古詩만도 30여수가 넘는다. 또한 同一한 제목 아래 2首이상 連作한 것도 30여수로 總 시편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임춘이 이처럼 이규보 등 新進士類와 달리 古體詩와 長篇連作을 즐겨 썼던 것은 바로 그의 고문부흥운동에 기인한 것이다. 즉 그는 성물에 얽매이거나 수식을 많이 하여 美麗하게 된 시를 거절하고 詩經詩에 근본을 둔 簡古·質樸한 시를 쓰고자 했다. 곤궁한 생활로 인한 자신의 비참하고 불우한 사정을 토로·하소연하는 데는 성물에 얽매이는 근체시보

10) 唐의 王維의 詩는 實景이 눈에 보이는 듯이 똑똑하게 그려져 있어, 마치 詩 가운데 그림이 있는 것 같다고 한데서 유래된 말.

다는 자유분방한 고시가 적절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의 시를 살펴보자.

詩人自古以詩窮 옛 시인들은 서로 빈곤했다는데
 顧我爲詩亦未工 나의 시는 아직 세련되지 않았나 보다.
 何事年來窮到骨 하지만 무슨 일로 빈곤이 뼈에까지 사무칠까?
 長飢却似杜陵翁 오랫동안 굶주린 것이 杜甫와 같네.¹¹⁾

이 시는 시 전체가 참담해서 그의 곤궁한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연민의 정까지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 시는 어떤 운치나 매력도 없으면서 시어 자체가 초췌하고 파리한 인상을 준다.

吾少愛林泉	나도 젊어서 山水를 좋아해서
浩然思歸歟	浩然히 돌아갈 것을 생각했지.
(中略)	(중략)
嘗聞避時者	일찍이 들었네. 때를 피하는 이는
亦有山澤癯	역시 山澤도 여윈다는 소문을.
往而不知返	가면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르니
無奈近於愚	어리석음에 가까운 것 어쩔 수 없네.
今子學真理	이제 그대는 진리를 배우고파
而隱佛之徒	佛徒와 함께 숨어서 사는 건지.
放迹逃名教	자취를 드러내어 名教로 향하게나
幽閑意所娛	그윽한 취지에 절로 즐거워지리.
春秋猶且富	春秋論은 오히려 풍부하지만
其道固已孤	그 道는 참으로 외로웠네.
吾觀今之世	내가 본 요즘의 세상은
擾擾群浮屠	너도 나도 모두가 佛徒뿐일세.
奇形又詭服	기이한 얼굴과 교묘한 복장은
與俗無異趨	속세와는 전혀 취향이 다르네.
以此獲其罪	이 때문에 그 죄를 얻어

11) 林椿, 『西河集』, 卷2, 「書懷」

見排於吾儒 우리 儒家에서 배척을 당할 걸세.¹²⁾

이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춘의 시에는 虛字(방점)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시구는 대부분 산문적인 어구로 卽物性を 강하게 띠게 되었다. 그 이유는 고시의 특성과 관계가 깊다. 즉 接物에서 일어나는 感興을 표현함에 있어서 고시는 句數의 제한이 없고 平仄이 엄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押韻이나 對偶 등이 근체시에 비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산문어구를 구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산문어구를 구사하게 되면, 琢句에 의한 整齊美나 外形美는 기대할 수 없지만 반면에 작가의 詩心은 충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¹³⁾

결국 임춘의 시는 그의 고문운동으로 인하여 산문적이고 卽物性이었는데, 반면 그는 비참한 생활을 美的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끝내 파리하고 초췌한 인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시의 산문화는 한유 등 唐의 고문가에서 비롯되어 宋의 고문가인 歐陽修 및 蘇軾에 이르러서는 그들 시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임춘의 시가 산문적이고 즉물적인 데는 唐宋 고문가의 영향도 크게 적용했을 것이다. 결국 임춘이 고문부흥운동에 얼마나 충실했던가를 짐작케 해주는 작품상의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죽림고회원들은 이렇게 질박한 고풍시를 추구하며 당시의 東坡 모방 및 표절을 비난했지만, 한편으로 그들 대부분은 은연중에 동파를 모방하고 또한 자신의 시가 동파의 시와 닮은데 대해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임춘이 「與眉叟論東坡文書」에서

다만 나와 그대는 비록 그 문장을 읽지는 못했으나 가끔 句法이 서로 비슷하니 그 心中에서 얻은 것이 어찌 서로 합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¹⁴⁾

12) 林椿, 『西河集』, 卷1, 「寄山人益源」

13) 金乾坤, 「林椿의 生涯와 漢詩研究」, 미간행 碩士論文, 韓國學大學院, p.85.

라고 하여 동파시를 닮은데 대해 자랑하고 있음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인로도 역시

문을 걸어 닫고 깊이 틀어 박혀서 黃山谷·蘇東坡 두 文集을 읽은 뒤에야 말이 힘차고 韻이 또랑또랑 해져서 시를 짓는 要訣을 얻었다.¹⁵⁾

라고 하여 東坡의 문집을 읽은 뒤에야 시어가 힘차게 되어지고 詩韻이 또렷하게 되어졌으며 시를 짓는 要訣을 얻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에 드는 이인로의 「早起梳頭效東坡」는 東坡詩의 效體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참고로 東坡의 시 「旦起理髮」을 脚註에 수록하여 비교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¹⁶⁾

燈殘綴玉葩	등불 쇠잔해 옥꽃송이[蕊地] 이어주고
海闊涵金鴉	바다는 넓어 금까마귀[바다에 처음 뜨는 해] 머금었네.
默坐久閉息	묵묵히 앉아 오래 숨을 참고

14) 林椿, 앞의 책, 卷4 “唯僕與吾子雖未嘗讀其文 往往句法已略相似矣 豈非得於其中者 聞與之合耶”

15) 崔滋, 『補閑集』, 卷中 “杜門讀黃蘇然後 語邈然韻鏘然 得作詩 三昧”

16) 『東坡詩集』, 卷41 “安眠海自運 浩浩朝黃宮 日出露未晞 鬱鬱濛濛松 老櫛從我久 齒疎含清風 一流耳目明 習習萬竅通 少年若耆睡 朝謁常怱怱 爬搔未云足 已困冠巾重 何異服轅馬 沙塵滿風颺 瑠鞍響珂月 實與柵機同 解放不可期 枯柳豈易逢 誰能書此樂 獻與腰金心(잠자던 바다는 질로 출렁이어, 넓은 黃宮에 조회하네. 해 솟아 이슬 채 마르지 않고, 축축이 서리 맞은 소나무 적시네. 낡은 빗은 나를 따르지 오래고, 이 성기어 맑은 바람 머금네. 한차례 씻음에耳目이 밝아지고, 거둬서耳目口鼻가 뚫리네. 소년이 잠을 즐긴다면, 아침 알현은 항상 바쁘리다. 머리 다듬기가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이미 두건이 무겁네. 무슨 異服과 轅馬인가. 먼지 일어 말갈기에 바람 가득하네. 화려한 안장은 굴레소리 달까지 울리니, 실로 수갑소리와 같도다. 해방은 기약할 수 없고, 枯柳를 어찌 쉽게 만나리오. 누가 능히 이 즐거움을 기록하여, 바쳐서 귀한 마음 두드리오.)”

丹田手相摩	丹田을 손으로 어루만지네.
衰髮千絲亂	쇠한 귀밑털 일천 실 어지럽고
舊梳新月斜	묵은 빗은 초승달이 비긴 듯.
逐手落霏霏	손을 따라 소록소록 떨어지는 것
輕風掃雪華	산들바람이 눈을 쓰는 듯하네.
如金鍊益精	마치 금을 다뤄 더욱 精한 것처럼
百鍊未爲多	백번을 다루어도 많다 할 수 없네.
豈唯身得快	어찌 몸만 가뜩하고 상쾌하라
亦使壽無涯	수명 또한 길게 할 것을.
老鷄浴糞土	늙은 닭은 거름밭에 푸덕이고
倦馬驥風沙	피곤한 말도 모래에 장치나니.
此亦能自養	그것도 몸을 수양하는 것이라고
聞之自東坡	東坡大人에게서 물었노라. ¹⁷⁾

이외에도 五言古詩 「用東坡語奇貞之上人」(『東文選』 4), 七言絕句 「用東坡榴皮題沈氏壁之韻」(『東文選』 20), 七言律詩 「雪用東坡韻」(『東文選』 13) 등의 시들은 그 제목만 보더라도 이인로가 소동파를 본받은 실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작품들이다.

결국 죽림고회원들은 많은 중국 시인들(賈島·陶淵明·盧照麟·王維·李白·杜甫·白居易·黃庭堅·李商隱 等)을 공부하여 폭넓게 본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東坡를 따랐음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죽림고회원들은 당시 시풍이 본질을 잃고 희작화 되어가는 현상을 비판하였지만 그들의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그들 역시 和·次韻, 走筆, 險韻 등을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무릇 唱韻走筆이란 것은 남들로 하여금 그 韻을 부르게 하여 詩를 짓는 것으로서, (중략) 이 법은 李湛之가 그것을 倡始한 것이다.¹⁸⁾

17) 徐居正, 앞의 책, 卷4.

18)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2, 「論走筆事略言」 “夫唱韻走筆者 使人唱其韻而賦之 (中略) 此法李湛之 清卿始倡之矣.”

라고 이규보가 지적한 것을 보면, 이담지는 走筆의 倡始者라고 불릴 만큼 走筆에 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崔滋가,

함순, 이담지, 옥화우 등이 冠童 예닐곱 명을 데리고 귀범사 돌다리 위에 모여서 酒宴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앞사람의 韻을 써서 시를 짓는데 이담지가 율기를 ‘한 여름 더위는 바람이 쓸어 가고 가을의 뜻은 달이 머금어 오네.’라고 하니 咸과 玉이 놀래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¹⁹⁾

라고 한 사실을 보아도 함순, 이담지 등 죽림고회원들이 주필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인로는,

오늘 아침 서루에 올라보니 눈이 비로소 멎었기 때문에 兩老의 시가 생각나기에 화답시 두 편을 지었는데, 나도 또한 억지를 못 면했으니 이를 보는 이는 너그러이 용서하시라.²⁰⁾

라고 하여 스스로 和·次韻의 시가 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시흥을 못 이겨 화·차운의 시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和歸去來辭는 그가 화·차운하여 지은 시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편 이인로는 回文詩란 문자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회문시란 것은 순서대로 읽으면 부드러우면서 쉽고 거꾸로 읽더라도 또한 곱

19) 崔滋, 앞의 책, 卷中, 36 “咸司直淳 李先達湛之 玉先達和遇 率冠童六七人 會歸法石橋開小飲 用前人韻賦詩李曰 夏炎風掃去 秋意月含來 咸玉皆愕然 自屈.”

20) 李仁老, 『破閑集』, 卷上, 18 “今朝登書樓雪始霽 因憶兩老詩 和成二篇 僕亦未免於牽強 觀者 宜恕之.”

끄럽고 딱딱한 맛이 없이 말과 뜻이 잘 어울려 미묘하게 되어야 잘 되었다고 한다.²¹⁾

라고 하여 회문시 짓기가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이 회문시를 남기고 있다. 다음은 이인로의 회문시인 「獻時宰回文」²²⁾이란 작품이다.

早學求遊宦	일찍 글을 배워 벼슬을 구하려니
詩成謾苦辛	부질없이 시 짓는데 애만 쓰누나.
老懷春絮亂	늙은 회포는 春絮처럼 어지럽고
衰鬢曉霜新	성긴 귀밑털은 서릿발이 되었네.
倒甌朝炊斷	가마솥 었어지니 아침밥 못 짓겠고
飢腸夜吼頻	주린 창자에서 밤에도 소리 나네.
報恩心款款	은혜 갚으려는 마음 간절하건만
誰是救枯鱗	枯鱗을 구할 사람 그 누구던가.

이 詩를 거꾸로 놓아도 역시 自然스럽다.

鱗枯救是誰	물고기 말라 가니 구하는 이 누군가
款款心恩報	정성스런 마음으로 은혜를 갚으려 하네.
頻吼夜腸飢	자주 소리나는 밤에 창자는 주리었고
斷炊朝甌倒	밥 짓는 것이 끊어지니 아침 가마솥은 기울었네.
新霜曉鬢衰	새 서리처럼 새벽 귀밑털은 쇠하였고
亂絮春懷老	어지러운 벼들가지처럼 봄 회포는 늙어가네.
辛苦謾成詩	辛苦하여 부질없이 詩를 이루니
宦遊求學早	벼슬하고 놀면서 배움을 일찍 구하네.

또한 죽림고회원들은 건강부회하여 멋대로 창작해서 시의 본질을 잃

21) 위의 책, 卷上, 16 “夫回文詩 順讀則和易 而逆讀之亦無聲牙艱澁之態 語意俱妙然 後謂之工”

22) 위의 책, 卷上, 16.

는 것을 비판하면서, 詩才 과시를 위해 險韻을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죽림고회원들도 한편으로는 험운을 간혹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보한집』에,

기미년 한 여름에 진양공의 집에 천엽유화가 활짝 피었다. 공이 이인로, 김극기, 이담지, 함순, 이규보 등을 맞아 시를 짓도록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린 운자 중에 禽字 운이 가장 強韻이었다.²³⁾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도 때에 따라서 強韻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오세재의 험운시인 오언율시 「戟巖」²⁴⁾을 예로 들어 보자.

北嶺巉巖石	북쪽 산마루에 험하게 솟은 바위
旁人號戟巖	옆 사람들은 창바위라 부르네.
迢挾乘鶴晉	멀리 우뚝한 모습은 학을 탄 王子晋이요
高刺上天咸	찌를 듯 높이 솟은 것은 하늘에 오르는 巫咸같네.
揉柄電爲火	자루를 다듬는 데는 번개가 불이 되고
洗鋒霜是監	날을 씻는 데는 서리가 소금이네.
何當作兵器	어쩌면 정작 병기를 만들어
敗楚亦亡凡	초나라 이기고 또 범나라 망칠꼬.

이 시를 보면 ‘巖’과 ‘鹽’의 험운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에 宋人이 이 시를 보고 탄복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살아있는가. 지금 무슨 관직에 있는가. 우리 송나라에 이 정도의 시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벼슬을 줄 것이다. 이 시는 심심파적으로 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려운 운을 내서 짓게 한 것이다.²⁵⁾

23) 崔滋, 『補閑集』 “已未仲夏 晉康公第千葉榴花盛開 公邀致李翰林仁老 金翰林克己 李留院湛之 咸司直淳 李先達奎報 謂賦之 席上拈禽字最強”

24) 위의 책, 卷上, 46.

25) 위의 책, 卷上, 46. “此人在乎 今至何官 我宋有如此作詩者 則必爵之 此詩非

라고 하여 이 시는 다른 사람이 낸 強韻을 따라서 지은 시일 것이라고 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죽림고회원들은 새로운 문학관에 입각하여 고문부흥운동을 제창하고 당시의 문학적 병폐를 시정하려고 했으나 결국 전반적 수준을 제고시키지는 못했다. 그것은 同時代人으로서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고 곤궁한 생활의 타개책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의식해야만 했던 사정으로 인하여 때로는 당시 문풍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그렇지만 『파한집』 등을 저술하여 비평의 새 장르를 개척하였고 ‘가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는 등 문풍 쇄신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V. 結

죽림고회원들은 그들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당시 형식 위주의 科場文學이라든가 변려문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走筆, 險韻, 回文詩 등 詩의 戲作化 경향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고문부흥운동을 제창하였다.

그들의 고문운동은 養氣論과 鍊琢의 중시로 나타나며 또한 고문운동의 본질인 ‘風骨’과 ‘興奇’를 받아들여 풍자시와 假傳의 창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고문가의 정신인 ‘法古創新’을 받아들여 新意 및 言外之味를 추구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찾아서 이 땅 최초의 시비평서인 『破閑集』을 이루었고 「和歸去來辭」를 통해 ‘辭’ 문학의 장을 열어 놓았다. 또한 그들은 시 창작에 있어서도 고문정신을 따라 古詩 長篇에 주력하여 그들의 시는 결국 虛字 多用의 산문체로 흘렀기 때문에 미적으

閑中題詠 殆被人占強韻令賦耳.”

로 승화되지 못한 채 卽物的인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죽림고회원들의 당시 문풍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그들의 문학 이론과 실제 작품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同時代人으로서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었고 곤궁한 생활의 타개책과 원만한 交友관계로 인하여 때로는 당시 문풍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죽림고회원들은 새로운 문학관에 입각하여 고문부흥운동을 제창하고 당시의 문학적 병폐를 시정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식의 불철저성이나 창작적 시도의 불성실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고문운동 초창기라는 시대성이 갖는 한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公的 상황이 요구하는 의례적 규범성을 넘어서기 어려운 한문학의 당대적 수준의 한계라 하겠다. 따라서 고문운동의 완성은 고려 말기 李齊賢의 등장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본 논의는 죽림고회의 詩學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죽림고회의 詩學과 작품세계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학작품의 미학적 구조와 표현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의는 이 방면에 대한 연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어 및 平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천착이 요구되는 바, 이 방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훗날을 기약하는 바이다.

<參考 文獻>

- 金宗瑞, 『高麗史節要』
徐居正, 『東文選』
——, 『東人詩話』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 『白雲小說』
李仁老, 『破閑集』
李齊賢, 『櫟翁稗說』
林 椿, 『西河先生集』
崔 滋, 『補閑集』
『昭明文選』, 台北：文化圖書公司, 民國 68年.
- 權景千, 「高麗武臣執權期の文學論 研究」, 高麗大學校 석사논문, 1987.
金乾坤, 「林椿의 生涯와 漢詩 研究」, 韓國學大學院 석사논문,
金鎮英, 「林椿 研究 (1)」,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제9호, 1980.
金鉉龍, 「麴醇傳과 麴先生傳 研究」, 『국어국문학』 제65·66輯, 국어국문학회, 1974.
朴유리, 「李仁老의 詩世界」, 高麗大 教育大學院 석사논문, 1981.
徐首生, 「竹林七賢研究 (1)」, 語文學, 第15, 1966.
李東歡, 「高麗竹林高會研究 -傳記的 考察을 중심하여-」, 高麗大 석사논문, 1968.
李佑成, 「高麗 武臣執權下의 文人知識層의 動向」, 『韓國의 歷史像』, 創作과 批評社, 1982.
全鎔大, 「高麗朝 批評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5.
鄭 珉, 「古文論 研究 序說」, 『한양어문연구』, 한양대 한양어문연구회, 1989.
陳祝三, 「李奎報研究」, 成均館大學教 박사논문, 1978.
崔 雄 外, 『韓國古典詩學史』, 서울：弘盛社, 1980.
韓連洙, 「高麗竹林高會研究 - 文壇의 性格을 中心하여 -」, 『國語國文學』 第15輯, 서울대 師大 國語國文學研究會,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Works of Chook-lim-ko-hoe(竹林高會) / Heo Nam Wook**

According to this literary view-point, their criticizing the literary spirit(文風) finally appeared as a movement of Ko-mun Renaissance(古文復興運動). This movement, like every Ko-mun writer of China, started with a negative view of reality in their unlucky situation.

This movement made much of Yang-ki(養氣) theory and Yon-tak(鍊琢), and accepted Poong-kol(風骨), and Hung-ki(興奇) which were the essence of the movement, and followed a satire and a composition of Ka-jon(假傳). They were in pursuit of new meaning(新意), even the slightest meaning hidden in the word, and through looking for a new genre continuously, they published Pa-han-jip(破閑集), the first critical essay on poetry in Korea. They also opened the scene of sa(辭) literature through Hwa-Kwi-ko-rae-sa(和歸去來辭). They followed Ko-mun spirit in poetry and mainly did long poems, so that their poems contain many meaningless words, which made them unaesthetic and remained real.

However, there was a deep gap between their literary works and theories because they couldn't neglect reality as contemporaries. Hardships in life and friendship among them forced them to follow existing literary spirit.

Finally, members of Chook-rim-ko-hoe(竹林高會), according to the new literary trend, advocated Ko-mun Renaissance and tried to correct a literary vice but in vain.

It was not because of inconsistency of problem consciousness or insincerity of inventive trial, but because of the limit of level for which social public

*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 / heonw@kangwon.ac.kr

situation called at that time. The level was of Chinese literature on process beyond the usual standard.

【Key words】 Ko-mun Renaissance, Yang-ki theory, Yon-tak, A deep gap between their literary works and theories, Try to correct a literary vice but in vain.

투고일 : 9월 25일, 심사일 : 11월 17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